

번호: PO-EP-054					
제 목	한국인 쌍둥이에서의 비만도 상관성 Correlation of BMI among Korean Twins				
저 자 및 소 속	김태훈1), 성주현2), 최지숙3), 송윤미3), 이가영4), 최은영5), 하미나5), 김호1), 김연주6), 신은경1), 김윤희1), 조성일1) 1)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, 2) 강원대학교 의과대학, 3)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, 4) 인제대학교 의과대학, 5) 단국대학교 의과대학, 6) 서울대학교 의과대학				
분 야	역 학 [유전 역학]	발 표 자		발 표 형 식	포스터
<p>목적: 비만은 유전요인과 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형질이다. 본 연구는 한국 쌍둥이 가족 코호트 중 같은해에 건강검진을 받은 쌍둥이에서 체질량지수(BMI)의 상관성 및 과체중의 일치도를 평가하였다.</p> <p>방법: 한국 쌍둥이 가족 코호트는 1915년부터 1988년까지 태어난 쌍둥이 26,000쌍의 가족으로 구성된 코호트이다. 이 중 1994년부터 2004년 사이에 함께 건강검진을 받은 13,086쌍의 자료를 본 연구에서 이용하였다. BMI 25이상을 과체중으로 정의하여 pairwise concordance, 즉 모든 pair 중 concordance pair의 분율을 계산하였다. 아울러 BMI의 twin correlation을 계산하였다.</p> <p>결과: 연령은 평균 33세였다. 쌍둥이의 성별 구성은 남녀 1,537, 남남 7,606, 여여 3,943쌍이었다. 총 남성 분율은 0.64였다. 성별 분율이 난성 분율(zygosity fraction)과 독립이라는 가정하에 난성별 수를 구하면 MZ는 9,745쌍(74%), DZ는 3,341쌍(26%)으로 계산되었다. 과체중인 concordant pair는 8.4%, 정상인 concordant pair는 70.5%로서, 과체중의 pairwise concordance는 79%로 나타났다. 과체중의 유병율은 19%이므로 기대치인 3.6%, 65.6%, 30.8%에 비해서 유의하게 일치율이 증가된 것이다. ($p < 0.05$) 쌍둥이 사이에 BMI의 상관관계는 남남, 남녀, 여여 쌍에서 각각 0.52, 0.09, 0.60이었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.</p> <p>결론: 쌍둥이에서 과체중의 일치율은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특히 동성의 쌍둥이에서 상관관계가 컸고, 그 중에서도 여자 동성에서 가장 높았다.</p>					